

Seoul Pack의 발자취

A Course of Seoul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

Seoul Pack(Seoul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시회로 올해 제9회를 맞게 되었다.

Seoul Pack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1985년 KORPACK에서 비롯된다. 국내 포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KORPACK은 포장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 촉진, 포장의 적정화와 원가절감 유도, 상품의 품위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물적 유통합리화로 기업의 비용절감 방법 모색 등의 취지 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당시 한국포장디자인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KORPACK '85는 많은 포장인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최돼 9개국 92개 업체(국내 : 54업체, 해외 : 38업체)에서 159부스 규모가 출품되었다. 그 중 포장기계류의 출품물이 많았으며, 재료부문에서는 발포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한 완충재 및 용기 4개 업체, 종이포장재로서 지기구조물 1개 업체, 삼중양면골판지 2개 업체, 1회용 종이컵 제조업체가 출품했다.

또한 스트레치랩, 수축라벨 등의 플라스틱 포

장재 7개 업체, 알루미늄 포장재 1개 업체를 비롯하여 콤비블럭, 하나콤, 플라스틱 골판지, 플라스틱 파렛트도 이 당시 이미 출품되어 소개됐다.

다소 기계류에 치우쳤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포장전시회인 만큼 일반인들에게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포장산업이란 어떤 것인가와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KORPACK '87에는 10개국 89개 업체(국내 : 57업체, 해외 : 32업체)에서 190부스가 출품됐다. 참관객은 해외 참관객 514명을 포함하여 총 40,425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KORPACK '85보다 참가 업체 수는 적었던 반면 부스는 늘어났다.

1989년에는 전시회 명칭을 KORPACK에서 Seoul Pack으로 변경하고 활성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참가업체도 10개국 118업체(국내 : 63업체, 해외 : 55업체)로 KORPACK '87 보다 업체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전시부스도 295부스로 KORPACK '87의 190부스보다

100여 부스가 늘어나 어느 정도 국제전시회의 면모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외 참관객은 역대 최고의 594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Seoul Pack '93은 13개국 118개업체(국내 : 60, 해외 : 58업체)에서 375부스로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기계 및 부품, 포장재료 가공기계, 물류관련 기자재, 기타 관련 기기 420여종이 선보였다.

Seoul Pack 95는 역대 최고의 17개국에서 139업체(국내 : 50업체, 해외 89업체)가 참여, 특히 전체적인 전시회 운영 장치업체의 업무지원이 돋보였고, 레이아웃 구성면에서 향상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Seoul Pack '97은 16개국 121업체(국내 : 50업체, 해외 : 71업체)에서 330부스가 참여했다.

국내외 포장기자재 457종을 선보인 Seoul Pack '97은 포장자인 분야와 물류관련 기기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실수요자와 바이어 중심의 전시회가 이루어져 상담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대망의 20세기를 마감하는 Seoul Pack '99은 국내 (사)한국포장협회가 공동 주최하게 됨에 따라 포장기계류 위주의 전시회에서 탈피하여 필름, 가공 및 그라비아 인쇄 등 연포장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발돋움하는데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신규상품 홍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시회가 됐으며, 마케팅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돋보였다.

Seoul Pack 2001(Seoul international Packaging Exhibition 2001)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7까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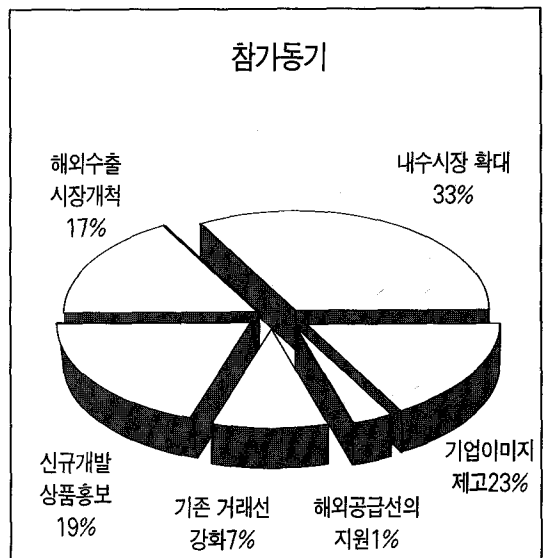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공동주최 기관이었던 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이 포장분야 업무 종료로 인해 후원기관으로 변경되고, 한국포장기계협회(KPMA)가 주최자로 참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사)한국포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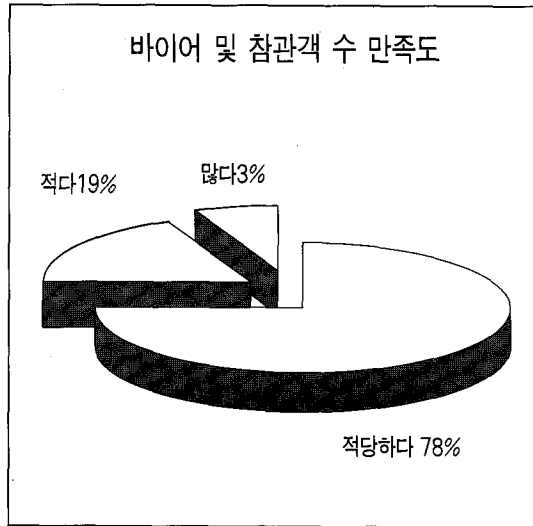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관 별로 포장관련 해외 바이어 300명 이상을 유치, 국내 포장관련 업체의 수출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사)한국포장협회와 한국포장기계협회는 국내 업체의 유치는 물론 일본, 중국 등 각 국 포장단체 및 기계산업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회의 성공적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 ~[그림 5]는 지난 Seoul Pack '99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참가동기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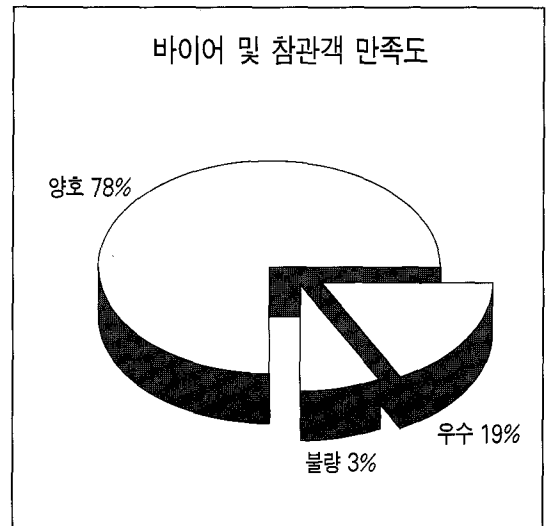
(그림 1) Seoul Pack 1999 참가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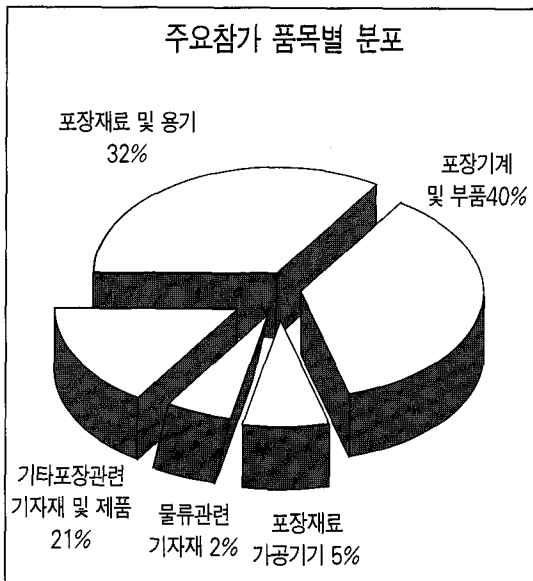
[그림 2] Seoul Pack 1999 바이어/참관객 수 만족도



[그림 3] Seoul Pack 1999 바이어/참관객 수준 만족도



[그림 4] Seoul Pack 1999 주요 참가품목별 분포



[그림 5] Seoul Pack 1999 지역별 방한 바이어 분포

